

# 동대문운동장에 '조선 역사' 꿈틀 꿈틀

### 한양도성 방어 구심 '서울성곽' 발굴 물 배수시설 '이간수문' 전모 드러나

조선시대 서울성곽과 이간수문, 훈련도감에 속한 분영(分營)인 하도감 관련 건물지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적의 구조, 축조 방식, 성격 등도 명확해지는 중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인 중원문화재연구원(원장 차용길)은 면적 3만1000㎡에 이르는 서울 중구 을지로7가 일대 '동대문운동장 유적'을 조사하고 있다.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되는 서울 성곽 123m 등을 확인했다.

당초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됐던 서울 성곽은 운동장 조성으로 인해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성벽 123m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벽의 잔존높이는 내벽 기준 최고 4.1m이며, 폭은 기저부 기준 8~9m다.

17일 중원문화재연구원은 "서울 성곽은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수차례 개축을 거쳐 한양도성을 방어하는데 중심점이 된 곳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기별로 도성의 축조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곽의 물 배수구인 이간수문(二間水門)도 확인했다. 이간수문은 남산에서 도성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도성 바깥쪽으로 배수하기 위해 축조한 성벽 시설물이다. 상부의 홍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벽하게 남아있어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실체를 확인했다.

도성 안에서는 건물지 10곳, 집수 시설 2개소, 우물 4개소 등을 확인했다.

출토 유물도 다양하다. 분청사기, 조선청자, 무문백자, 청화백자, 일본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물 배수시설 이간수문.

과 중국 등 외국의 자기 등 15~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자기들이 출토됐다.

특히 청자 돈(墩)은 출토된 예가 드물어 도성 내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중원문화재연구원은 "동대문 야구장 부지에서는 하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적심석군 및 모래적심과 배수시설 등이 확인됐다. 앞으로 정확한 규모 및 성격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안중근 옥중 붓글씨 5억5천만원

### 서울옥선 경매서 역대 최고가로 낙찰

안중근(1878~1910) 의사의 옥중 휘호가 5억5000만원에 팔렸다.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선이 16일 평창동 서울옥선스페이스에서 진행한 올해 마지막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묵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가 추정가(3억~4억원)를 훨씬 웃도는 5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동안 경매된 안중근 의사의 휘호 중 최고가다.

2006년 12월 서울옥선에서 열린 '모사재인성사재천(謀事在人成事在天)' 휘호는 4억6000만원에 거래됐었다.

또 2002년 5월 문방사우와 문인

화 경매에서 '담박명지영정차원(澹泊明志寧靜致遠)'이 2억1870만원에 낙찰돼 당시 서울 부문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번 경매에서는 고미술의 인기가 높았다. 총 출품작 51점 중 35점이 팔려 낙찰률 69%를 기록했다.

'민화경작도'는 추정가의 4배가 넘는 4300만원, 조선시대 '청화백자산수문사각반' (추정가 7000만~8000만원)은 1억1800만원에 낙찰됐다.

조영남이 자신경매인 '화이트 세일'에 내놓은 작품 30점은 모두 낙찰됐다. 낙찰총액은 1억200여만원을 기록했다.



안중근 의사의 옥중 휘호

# 밀양에 얽힌 설화서 조상 지혜 배우세요

### 시, 문헌 수집·정리 '밀양 설화집' 3권 출간

밀양시가 지역 설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밀양설화집'을 발간했다.

시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 밀양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 들어 밀양문화회 회원인 대학교수, 지역 문화가, 시인 등 8명

이 주관해 발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삼량진읍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을 직접 다니며 옛부터 전해 내려 오는 설화를 구술 채록하고 문헌을 수집·정리해 총 3권 463편으로 출간했다

밀양설화집에는 조상들의 언어,

풍습, 정서는 물론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 등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담겨져 있으며 또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 사람살이의 도리와 지혜를 총 망라해 수록하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각종 매체문화 중심 사회에서 설화의 전승과 보존은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시민들에게 좋은 읽을거리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전통 문화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발간된 500여부를 우선적으로 관내도서관과 학교, 관련단체 등에 배부하고 내년엔 추가로 발간해 전국의 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 밀양설화집중 가장 흥미 있고 재미있는 100편을 선정, 핸드 북 형식으로 밀양설화선집을 발간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의 전설 50선집'은 밀양 지역에서 가장 사실에 가깝고 중요한 이야기 50여개를 선정해 내년 3월께 발간 예정이다.

# 진주시립합창단 오늘 정기연주회

진주시립합창단은 18일 오후 7시 30분,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제4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추운 겨울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의 시간을 마련코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시립합창단 2008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동요 메들리(눈꽃송이, 봄송이, 꼬부랑 둔덕, 피리, 봄 편지), 환희의 송가(랜달 스트롭 곡), 가요정선(숙녀에게,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너, 새들처럼, 사랑으로), 성탄절을 맞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또 다시 찾아온 성탄절, 천사 찬송하기를 등, 영광(저 높은 곳에 영광 있을지이다, 주 하나님, 주님만 기록하시다) 등 다양한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며 무료 공연으로 개최된다.



밀양에 얽힌 설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밀양 설화집'.

# 2008 문인들...인터넷 바다를 유명하다

### 순수문학 온라인 연재 트렌드로 자리잡아 박범신 이어 황석영·공지영 작가 등 가세

순수문학의 온라인 연재가 봄을 이룬 한 해였다. 지난해 8월 박범신의 장편 '출라체'를 시작으로 2008년 들어 인터넷 연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올해의 화제작 '개밥바라기별'도 온라인 연재가 시발점이다.

황석영, 공지영, 정이현 등 작가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왔다. 과거 귀여니로 대표되던 인터넷 소설이 본격적으로 대세되고 있다. 2008년은 출판점이야 부흥기다.

황석영은 2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개밥바라기별'을 썼다. 연재 당시 180만명이 방문, 8월 단행본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동안 35만부가 팔려나가며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정이현도 8월부터 인터넷 교보문고 블로그에 신작 장편 '너는 모른다'를 연재 중이다. 지난해 계간 '문학동네'에 '하우스'란 제목으로 한 차례 연재한 소설을 온라인으로 옮겼다. 이후 문학동네를 통해 책으로 출간된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지영과 이기호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문학 속 세상'에 연재를 시작했다.

공지영의 '도가니', 이기호의 '사과'는 잘해오'가 동시 연재되는 방식이다. 과거의 블로그 연재와 달리 뉴스를 알려주는 난에 하나의 카테고리 문학이 묶였다.

이곳에는 소설뿐 아니라 시, 에세이 등 다양한 문학콘텐츠들도 입주했다. 현대문학 55주년 기념 현대시 70편, 시인 함민복의 에세이가 요일별로 연재된다. 소설에 편중된 문학의 다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1일부터는 박민규, 백영호가 온라인서점 '에스24' 블로그에 소설 연재에 들어갔다. 박민규는 못생긴 여자와 그런 여자를 사랑하

는 남자의 이야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백영호는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 '다이어트의 여왕'을 연재한다. 배경음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삽입, 블로그의 특징까지 활용했다.

문학의 온라인 연재는 PC통신 시절 '퇴마록', '슈퍼팬이었던 사나이' 등 장르문학 연재 사례가 최초 격이다. 당시 이우혁의 '퇴마록'은 클릭수 2억3800만번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대체되면서 자취를 감춘 현상이다.

본격문학 연재는 2000년 '알삼닷컴'에서 출발했다. 한국소설가협회 작가 100명이 작품을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방식이다. 2002년에는 소설연재 전문사이트 'e-노블타운'이 개설돼 구호서, 하재봉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작가 공지영(왼)과 황석영.

# 빙그레 환경개발

“빙그레 환경개발은 환경지킴이! 쾌적한 환경연출의 선두주자!”

- \* 창고 및 사무실정리
- \* 쓰레기 완벽처리
- \* 테마별 쾌적한 공간연출(사무실, 업소, 이사전후 환경변신 등)
- \* 친환경적 인테리어
- \* 아웃테리어(주변 정리정돈 포함)

연락처 : 010-2923-0315, 246-0316

